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제 제25923호] 주제 107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를 이런 하디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한생일을 맞으며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여 이란 인민들에게 보급하게 된것을 거

다면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

올리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프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에 적극 기

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김정일령도지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나갈 경의를 봐주셨다.

로작발행식이 1월 31일 출판사에

2월의 봄빛 넘치는 강산에 그리움 불탄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평생성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였다.

가없이 밝고 푸른 하늘, 눈부시게
쏟아지는 빛···

립춘이 지나고 우수가 타기와도 강
산엔 여직 추위가 서려있어 운하의 물
은 얼어붙어있었지만 태양의 성지를
찾은 우리의 계부로는 물의 훈향이 끝
없이 흘러들었다.

자연이 주는 빛이고 열일기,

하늘의 빛과 보다 더 밝고 따뜻한
미소가 온 광장에 비껴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및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영상!

우리 수령님들께서 환히 웃고계시
여 강산에 봄빛 가득 넘치고 사람들의
가슴도 봄기운에 한껏 부풀는것
이 아니라.

그렇다. 2월은 봄이다. 조선의
밝은 미래가 꽂혀난 봄이고 인민의
삶을 꽂은 봄이다.

이 땅에 그 봄을 안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달려온 사람들로 광장은 마냥
설레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우리 당과 혁
명, 조국과 민족앞에 요구불멸
할 업적을 펼쳐놓으시었습니다.』

광장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대성산
의 주작봉마루,

영생의 그 언덕에 있는 조선혁명
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인민들
과 인민군장병들의 실정속에 다시금
깊이 생각되는것만 같았다.

76년전 백두평명성을 맞이한것
이 얼마나 크나큰 민족의 행운이었
는가요.

태양의 성지에 다보록이 가지를 펼
치고 설매이는 잔을들어서 뻗어진 산의
아들로 탄생 하시여 한생을 불멸의
영웅으로 수놓으신 위대한
백두평명의 혁명령도업적을 노래하는
것만 같았고 광장에 위치하는 공화국
기념당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 주신
우리 장군님의 폐사출의 위인상을
전해주는듯싶었다.

정생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헌생
이 뜨겁게 안겨오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이었다.

하기에 광장을 찾은 사람들의 가슴
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치열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직업적호기심으로부터 우리는
평생성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제일 선창으로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 날
먼저 광장을 찾은 사연은 서로 말라도 려정철동무네와 같이 자

행을 암고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광장을
둘러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미를 알아서 이렇게 화창한 날을

맞이하는것은 리정철동무가 취재를 위해
온 사람들의 실정은 모두 일치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번은 리정철동무가 취재를 위해
온 사람들은 광장을 찾은 우리를

느끼고 생각하였던바를 그대로
말하였던것이다.

『오늘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상쾌하고···』

자연은 『2월은 봄입니다』라는 노

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2월은 봄입니다. 자연도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의

미를 알아서 이렇게 화창한 날을

맞이하는것은 리정철동무가 향기로
맡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향기를 맡았고 생각하였다.



따리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다가 사
람들로 봄비는 광장에서 한 가정과
만났다. 만장대구역 광복1동에서 사
는 리정철동무의 가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린
리정철동무와 그의 가족들의 얼굴은
물에 상기되어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광명성설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의 실정은 모두 일치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번은 리정철동무가 취재를 위해
온 사람들은 광장을 찾은 우리를
느끼고 생각하였던바를 그대로
말하였던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광장을
둘러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미를 알아서 환히 미소를 짓고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절세위인들의
운해로운 사랑의 품속에 꽂피워온 인

물을 들이켜보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걸어갈 죄송한

앞길을 그려보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마다에 꿈같이
이 차넘치는것은 2월의 봄
빛이리라.

흔히 봄을 승리의 상징이
라고도 하고 죄망의 서사시
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봄에 대한 노래를 사랑하고 세대를 이어가며 봄의 노래를 지어부르기도 하는것이리라.

하ذا면 우리 인민의 마음 속에 간직된 봄은 어떤
봄이며 그 영원한 봄의 고
향은 어디인가.

소박수 푸른 봄이 흰 안
개 피워울리며 쉬엄없이 흐
르는 백두산밀영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왔다.

황일전의 나날 김정성장군님께서
제작의 무리를 살대비 듯 울어불이신
다는 전설같은 승천소식을 전해들으
며 기쁨에 절을 들으면서 그리고 보
면서 이 가정은 2월의 봄빛 속에 기쁨
있어서 백두평명성한생소식은 삼천
리 강산을 휘둘은 물우리였다. 그때
2월의 때 두산밀영고황집에 차넘친
것은 전설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그
런 실비스로는 봄기운이었다.

민족의 대통운이 열린 2월은 그때
부터 명실공히 조선의 최망한 봄이
되었고 민족의 자랑스러운 봄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2월의 봄이
맑아온 백두산밀영고황집을 조선의
대통운으로 토고 민족의 상장한 앞날
을 맑힌 봄의 고향으로는 마음속에
간직하였으며 민족대행운의 2월을

풀이라고 드럽게 노래부른다.

정녕 2월의 봄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넓대와 넓대를 이어오며 보
란차고 회랑한 삶을 꽂피울수 있었고
새월의 놀이터를 놀이hoodie도

우리는 그처럼 영광하였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
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을 힘차
게 걸어올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정치사상강국으로 되
고 세상이 경란하는 세계적인 군
사강국으로 강회발전될수 있은것도
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인민들의 모습에서 2월의 봄은 결코
자연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
고 있는 인민의 마음에서부터 면서 오
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광장에서 우리는 막랑구역 승리
3동에서 사는 정윤철동무의 가정을

정윤철동무는 머리에 희서리를 없
었으나 청년들처럼 열정에 넘쳐 이
렇게 말하였다.

한생생 숙고한 애국념원, 강경님원
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나라의 강성
번영과 후손민족의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시고 주체조선의
위황한 전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영적을 성종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그처럼 뜨거웠다.

광장공원에 애달하게 꾸려진 휴식
터에서 우리는 려명기리에서 산다는
정명실성도를 만났다.

『평생성질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노래하는 2월의
봄정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가까이
에 있는 대원수별을 웅용하여 서있는
군기수들을 향상한 군상들을 더
들여보았다.

그것은 마치도 2월의 봄을 영원히
간직하고 웅내여나가는 우리 군
대와 인민의 모습같았다.

민족대의 명절인 평생성질에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공민이 빛 양예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과 실장의 말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느라 송고한 도덕의리와
인민사랑으로 꽂수산태양궁전광장
을 더욱 풍물이 꾸려주어서 이 평의
봄연일 힘제를 떠래도 다져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짐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최고령도자 고종에서 혁명의 전두에
제시기에 2월의 봄은 영원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혁명의 고황집에 뿌리를 둔 2월
의 봄이 인민의 행복을 꽂피우고
위인의 순길이 사회주의강국의 새봄
을 불어온다.

그렇다. 계절의 봄은 자연이 꽂피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데 양으로 영원히 높이
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도 따라
우리 인민이 자자손손 행복을 누려
갈 사회주의강국의 새봄을.

본사기자 김준희
사진 본사기자 관동규



김영남동지가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
정에서 광명성절경축 음악무용합동
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인 김영남동지는 17일 평양대학

제일본조선인총회단 단장인 고덕우
총련나시도포분부 위원장과 관계부
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동지가

쓰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베오그라드

쓰르비아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루 부취즈작하

나는 쓰르비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
가 두 나라 인민들의 친밀한 협력과 남원에 맞게 매우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동

지

가

주제 107(2018)년 2월 15일

뜻 깊은 탄생일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작은 자신에서 어떻게 생일을 칠수 있
겠는가고 굳이 시장에서

맞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축을 칠수 있겠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축을 칠수 있겠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축을 칠수 있겠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굳이 웃는가고 경애하는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절절해지는 그리움, 불라는 맹세

풀없이 울려퍼지는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뜻깊은 평생성질 아침 마식령 스키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냈다.

마식령호텔에서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금방 브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이와 직위, 사는 곳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생면부지였지만 서로 서로 나누는 인사말은 얼마나 정다운가.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세계일류급의 마식령호텔에서 명질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평생간 약을 뒤흔들며 풀없이 메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평생감각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발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한류하는 나라입니다.』

구름속에서 풀이내리는 온 구슬복로인듯 어려 갈래로 흰 눈부신 스키주로들이 정찰한 자태를 한창하며 어서 오라 사람들을 반기는 듯하였다.

한시마비 스키주로를 날아지 치고싶은 육방에 사로잡힌 사람

들은 스기기새임대홀에서 스끼우스에 복장을 갖추고 너도나도 주로에 나섰다.

그렇게 마식령의 눈에게 풀어주는 시선이 사람들의 미음을 드겁게 했다.

『당에서는 스키장에서 인민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눈스케트를 보내주었습 니다.』

인민을 위해 천험의 산악을 다스려 희한한 온 및 주로를 펼쳐 주고 물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회의와 봄을 한껏 맛보도록 해준 당의 은성이 그대로 초운이 되어 흐르는 마식령스키장의 행보부터 시간이다.

안해와 함께 스끼를 타고 주로를 대내리면 해수에서 사는 지 험과 미끄럼을 하루정도 풀어놓을 수 있다.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스끼주로를 살피 이 날이내렸다.

아이기처럼 풀은 대회장성점에 서 땅하고 노랗고 파란 스끼목을 입고 스끼장을 종횡무진하며 지내며 김명숙동무가 민망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거나마저나 지영복동무는 얼굴에 미소를 짓으며 일어난다

『애들과 함께 오지 않은 게 후회되는구나.』

그제서야 나여린 아이들이 범

시지게 스끼와 썰매를 타는 모

습을 일별하던 김명숙동무가 남

편의 스끼복에 묻은 눈가루를

풀어주며 말했다.

『그것 모세요. 내가 아이들 틈에 려고 오자는데 스끼를 타기에는 너무 어려다고만 하더니...』

『다음번엔 꼭 려오기요.』

애들에게 용감성을 키워주는 데서 스끼를 타는 것이 상 없겠소.』

비정일동무가 순원회기로 신의 주시에 있는 동무들과 나누는 회의와 봄을 한껏 맛보도록 해준 당의 회를 터칠수 있는 인민의 면천지이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흥내낼수도 없는 근로인민을 위한 이런 희한한

분명의 세계에서 평생성질을 즐기고자 노력하는 회를 터치해온 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

명의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현행동 대마치진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정히 담들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인민사령의 열정과 봄을 달당해온

스끼장을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

있는 우리 인민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파

같이 대회장을 비롯하여 여러곳

에 꾸려진 회장실과 회의실

봉사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구름우에 솟은 휴식장이라고

일컬은 대회장휴식장에서 마식

령의 산나물로 만든 산나물탕,

산나물민주 등 다양한 로리들

과 민족음식들이 사람들의 구

미를 구구하고 먹을지도 놀라울

지다.『여기 푸짐한 군밤, 고구마가 땅질

을 하겠다고 하시고는 소식을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풋감염마가

왔다며 발유 등등 구르

고고한 군밤, 고구마가 땅질

을 하겠다고 하시고는 소식을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그들이 평양에

온천주변에 싶은 겁나무는 정말

많다고 한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가을철이면 미당과에

집에 풋감을 끓여 먹는다.

이렇게 말하다 그들이 평양에

온천주변에 싶은 겁나무는 정말

많다고 한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오

정순동부는 이렇게 말했다.

『풋감을 먹으려는 풋아웃과 웃

